

벗어나려면 한 구멍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19면에서 계속

에서 다쳐오니까 그런 수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기 한 시간 전에 이 마음의 도리를 알고 행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주 너그러이 웃을 수 있고, 죽지 않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몸중이는 사대로 흠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자체는 슬기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여래와 한자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항상 영원토록 하실 겁니다, 아미.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기록으로만 끄달리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그 의식들이 집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친척 간에도 있어요. 의식들이 그렇게 떠나질 못하고 자기 몸중이가 있는 줄 알아야. 자기 살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중이가 있는 줄 알고 가려니 물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될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고 또는 불 소용돌이를 지나야 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모르죠. 그러니까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또 그 모든 업인들이 공처럼 보이는 곤충들, 짐승들 또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데를 넘어가서서러니 그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보여서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니까, 그 업인 굴레에서 무명 굴레에서 악연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기. 그렇게 자기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참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간 차원 그대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관습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로도 되고 돼지로도 되고 닭도 되고 뭐, 별 거 별 거 다 되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왜 본체만체하느냐. 왜 나는 안 주고 너희들만 먹느냐.' 하고 귀찮게 구는 거죠. 자기 몸중이가 살아 있는 줄 알거든요. '너만 자기라는 착(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이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죽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유전이 돼서 자식한테 내려오죠. 그러니까 '천도해라, 마음을 공부해라. 물이 아닌 공부를 해라. 그렇다면 어떠한 영계성이든 유전성이든 세균성이든 업보성이든 다 한 겹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을 열 개를 이 속에 넣어도 한 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고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말갭게 맑은 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할 테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관(觀)하시고 속상하면 '아, 마음을 싱그러게 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는

데, 아니 왜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중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런 유전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나 미래의 자식이나, 과거에 살던 자기나 미래에 자기가 갈 거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지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막 그냥 옹광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막 옹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게 참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
**막 옹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게 참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옹광로에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옹광로에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오신통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오신통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오신통을 쓰며 살고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그런 신통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 조사님들은 오신통을 쓰는 것을 급기 사상으로 경계하셨습니다. 체와 용이 물이 아니라 하나 사회생활에서는 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 오신통을 활용하여도 부처님 법이나 역대 조사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는지요.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이 그냥 오신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들으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좋고 나

쁜 걸 아시죠? 그리고 말을 통해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가고 오는 것도 가고 오고 이러시죠? 고정된 게 없이 그냥 가고 오고, 말도 고정된 게 없이 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오신통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오신통을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오신통을 하되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진짜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느냐 이런 소립니다. 지금 오신통을 굴리고 있는데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얘기하죠. 내가 했다, 내가 됐다, 내가 살고 있다, 내 거다, 내가 번다,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것을 속 빼 버리고 '나는 공체로다. 나는 공체고 지금 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저 심부름할 뿐이야.' 이라고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신통을 벗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렇게 한 구멍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나는 관리인이요 집합소요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다. 자생중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내 마음으로써 모두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현을 시켜 보낼 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신통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가는 데 귀도 쓰고, 귀 가는 데 코도 쓰고, 코 가는 데 혀도 쓰고, 혀 가는 데 몸중이도 다 씹습니다. 그게 오신통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따로 따로 쓰는 거 보셨습니까? 오신통을 따로따로 쓰는 게 없으니까 오신통도 없다 이겁니다. 오신통도 벗어나서, 오신통이라고 이름 해서 오신통이지 오신통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가 종합해서, 밥을 지으려면 물도 들어가야 하고 불도 들어가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쌀도 들어가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밥 한 그릇이 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는 데 귀가 가고, 귀 가는 데 냄새 즉, 우리가 반찬 냄새 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냄새와 맛, 결정적인 맛, 이런 거는 좋고 저런 거는 나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싫구나.' 하는 결정적인 맛, 그런 것을 아는 그 자체를 송두리째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따로따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벌써 귀로 듣게 되고 귀로 듣게 되면 벌써 결정이 되게 되고, 벌써 나쁜 거 좋은 걸 가리게 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신통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이 고정되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어항 속이 오신통 안입니다. 지금 공

기주머니 안이 오신통 안입니다. 오신통 안에서 아무리 해 봤던들 내가 자유스럽게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기 없는 데나 공기 있는 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인이 못되고 오신통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이다 하는 생각이 말고 오신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마세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오신통 안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법 안에서 벗어나야 그것을 스스로 자유스럽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나는 관리인이요 집합소요
 심부름꾼밖에는 될 수가 없다!
 자생중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내 마음으로써 모두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현을
 시켜줘야 되겠기에
 나는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보살들로 이루어 놓겠다!**
 ”

주위 사람의 일은 되지 않는데...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가다 보니 제 육신에 대한 것은 근본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을 느끼는데 저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일은 왜 그렇게 잘 안되는지 그걸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육신인지요?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최발요.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군 믿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치는 것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입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어떻게 뻥이나 치고,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그러냐.'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초월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요 이렇게 안된다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일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 달라고 그럴 테냐?' 그리고 아탄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똑똑한 듯하게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아...' 그거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父)와 자(子)가, 주인공과 자기와 둘 아닐 때는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 그냥 천가가 되는 거야. 폭 주인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둡어, 싸고 뿌리와 한데 붙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돼야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면서 회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한 찰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왜 도움이 안되는 나 하는데, 그것은 들로 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 쉽죠. 왜? 이게 전력은 있되 가설이 안됐으니가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내 전기를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그리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돼야 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되지 않습니까. 들은 들의 전기를 있어야 맞물어서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혜로써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든지, 그거를 끌어다가 나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관하는 것만 가르쳐 주고 내 마음을 내 주면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노래방기기 설치

추천상품: 마이크, 스피커, 앰프, 노래방기기

베스트상품: 마이크, 스피커, 앰프, 노래방기기

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영상음향기기

후대용 충전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함 A/S보장·100% 환불보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배송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전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주최: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급 불전함

움직이거나 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